

8월까지 10년새 비온 날 가장 적었다

올해 강수일수 62.7일...작년 비 4.4일 적어

강수량도 2015년 이어 2번째 적은 709.6mm

올들어 8월까지 강수일수가 최근 10년 사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수량 부족도 확인돼 농사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일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이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포털의 최근 10년치(2010~2019년)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강수일수는 62.7일로 뒤를 이은 2018년의 67.1

일보다 4.4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내린 비의 양도 709.6mm로, 지난 2015년의 661mm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이 강수량은 지난 10년 평균(928.74mm)의 75%에 불과하다.

특히 '서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달군 2018년 폭염에 이어 무더웠던 올해는 여름 강수도 특히 적

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나 학계에 따라 여름을 나누는 방식은 온도나 월 등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기상청은 여름을 6~8월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올 여름 전국강수량은 496.8mm로, 이는 지난 2015년(387.1mm)과 2016년(446.2mm)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해로 기록됐다. 이 수치는 10년 여름평균(621.05mm)의 79.9% 수준에 불과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강수량이 적은 탓에 1~8월 누적강수량도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철 고압대가 많이 형성돼 이로 인한 하강기류로 인해 강수도 적었

고, 강수일수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한해 강수일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수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농어촌공사도 "2일 기준, 평년(최근 30년) 저수량과 비교해 경기·충청·'관심'·'주'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 초 북상 중인 정체전선으로 인해 8일까지 내릴 가을비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1

태풍 링링 7일째 한반도 영향줄 듯

기상청 "우리나라 부근 북상 가능성 높아"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필리핀 동부해역에서 발생했다.

이 태풍은 이번 주말께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560km 해상에 위치한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했다.

링링의 당시 기준 중심기압은 100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시속 65km)다. 강풍 반경은 200km로, 크기는 아직 소형 태풍 수준이다.

링링은 현재 시속 26km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 태풍은 대만 타이베이 동쪽과 중국 동쪽 바다를 거쳐 금요일인 6일 오전 9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약 39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에는 전남 목포 서쪽 약 110km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유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링링이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 부근에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시기 강도는 '중' 수준까지 강화될 전망으로 우리나라 강수와 풍계에 영향을 불거피었다.

'링링'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을 의미한다.

뉴스1

교육부 "대입 개편 본적 논의 내일부터 시작"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고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 봐야 한다는 관점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수행 중인 부총리가 3일 귀국한 뒤 수요일부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2022학년도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전형형을 수립할 때 기본이 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도 최근 발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제도)가) 변동되더라도 2022학년도 이후"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이나 여러 개선 사항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배롱나무 핀 캠퍼스에 내리는 가을비 비가 내린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배롱나무꽃이 핀 교정을 걷고 있다.

올해 첫 일본뇌염 발생...대구 80대 사망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29일 대구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된 뒤 사망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지난 해보다 15일 늦은 시기다.

80대 여성인 이 환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29일 최종 확진 후 사망했다. 이 환자는 거동불편자로 고혈

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 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은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은 작은빨간집모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역요령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다.

뉴스1



이슈 판결

법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 지위에 있어야 가능"

"업무 독자적 처리 교육관 관장, 근로자라 볼 수 없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훈)는 A씨가 B사(단법인)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B법인은 광주시로부터 교육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교육관의 관장으로 재직해왔다.

B법인은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A씨가 위수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점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법인은 A씨가 교육관장으로 임명된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B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의 출퇴근을 감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A씨가 교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관 운영 규칙을 살펴봐도 A씨가 운영과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업무집행에 B법인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A씨는 B법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에 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라치로구, 자라치로구 주민 민화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